

## 『가사』(나손본)의 성격 - 부조, 시조 부분을 중심으로

배대웅\*

### 차 례

1. 서론
2. 『가사』 ‘부조(浮調)’에 대하여
3. 『가사』의 시조 항목에 대하여
4. 결론

#### | 국문초록 |

본고는 우선 『가사』의 ‘부조’ 항목과 ‘시조’ 항목의 내용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나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사』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보충하며 그것의 가집사적 위상을 조금 더 확장해볼 것이다.

『가사』는 『남태』와는 거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가집이며 또한 ‘부조(浮調)’의 항목에 수록된 작품은 유동적 악곡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시조 항목의 경우도 부조 항목과 비슷한데 『남태』와의 관련성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혹 『남태』와 관련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선 분명히 다름이 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작품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곡창 가집으로부터 영향이 어느 정도 감지됐던 부조 항목 작품들과는 달리 시조창 항목 수록 작품들에서는 정말 미미한 정도의 영향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사』는 『남태』와는 연관성은 없지만 다른 여타 가집들과 꽤 많은 관련성을 보인다. 『가사』와 『가사』와 관련된 가집들을 보면 그것을 『가사』를 중심으로 『가사』 계열 가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발견된 가집들 중 일종의, 또다른 계열의 가집이 발견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계열 가집 전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특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박사수료.

핵심어 : 『가사』(나손본), 『시조집』(연대본), 부조, 시조, 시조창

## 1. 서론

본고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에 소장된 『가사』(나손본)의 특성을 논하며 그것에 대한 가집사적 위상을 논해보고자 한다. 『가나』<sup>1)</sup>의 첫 표지에는 ‘歌詞 時調 琴譜’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존 연구에서 원래의 표지로 추정하고 있는 다음 장의 표지에 ‘歌詞’라는 제목 뒤에 ‘歌詞 時調 琴譜’가 부기되어 있다. 『가나』의 편찬 연대 시조가 끝나는 부분에 “병신사 월열칠일등서~”라는 기록을 통해 1896년임을 알 수 있다.

『가나』는 표지에 언급된 대로 크게 “가사-가곡-시조-금보”의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가집 말미에 위치하는데, 『가나』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곡 부분에는 총 61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필사는 1896년에 되었으나 가집의 전반적인 모습은 19세기 전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곡 항목 뒤에는 ‘부조’라는 항목에 여덟 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시조창 형식의 작품 142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가나』는 원래 19세기 초반에 산생되었던 가집을 필사하고 이후 시조창에 꽤나 많은 관심이 있던 편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시조창을 수록했던 것이라 하였다.<sup>2)</sup>

이렇게 『가나』의 구성을 따지고 살펴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과연 ‘부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조’ 항목에는 여덟 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시조창 형식이다. 그런데 그 뒤 항목인 ‘시조’에는 시조창 형식이 수록됐다. 편자는 왜 시조창 형식의 작품을 굳이 ‘시조’ 항목에 신지 않고, ‘부조’

1) “『가사』(나손본)”을 의미. 이하 가집에 대한 약칭은 『고시조대전』에서 표기하는 것을 따른다.

2) 『가나』에 대한 논의는 권순희, 「가사 나손본」, 신경숙·이상원·권순희·김용찬·박규홍·이형대, 『고시조문헌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96~298쪽 참조.

항목에 실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부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한 ‘부조’ 항목 이후의 시조 항목에서는 어떤 특징이 보일까? 부조 항목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시조 항목에서도 나타날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 종합하면 『가나』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

본고는 우선 『가나』의 ‘부조’ 항목과 ‘시조’ 항목의 내용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나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나』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보충하며 그것의 가집사적 위상을 조금 더 확장해볼 것이다.

## 2. 『가나』 ‘부조(浮調)’에 대하여

본장에서는 먼저 『가나』 ‘부조’ 항목에서 찾아지는 특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부조’ 항목에는 총 8수의 작품이 전해진다. 이 작품들은 모두 시조창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부조’ 항목 바로 다음 항목은 ‘시조’로, 시조창 사설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굳이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가집사 전통 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항목명의 항목에 시조창 형식의 작품을 수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표 1] 『가나』 ‘부조’ 항목 작품의 타 가집 수록 현황

『가나』 가변 (『고시조대전』 번호)	수록 가집
#62 (4392.1)	『남태』, 『시여』, 『남하』, 『시조』, 『남진』, 『교주』, 『조연』
#63 (4237.2)	『무명』, 『가요』, 『시선』, 『조연』, 『시국』, 『시하』, 『시연』, 『울보』, 『남진』, 『가감』, 『시평』, 『조선』, 『잡평』
#64 (1274.4)	『영충』, 『조연』, 『영산』, 『시연』
#65 (29.3)	『악나』, 『홍비』, 『남태』, 『무명』, 『가요』, 『시여』, 『남상』, 『조연』, 『시국』, 『시하』, 『조사』, 『시연』, 『울보』, 『시오』, 『악고』, 『가감』, 『시평』, 『조선』

『가나』 가변 (『고시조대전』 번호)	수록 가집
#66 (1211.1)	『남태』, 『가요』, 『남상』, 『조연』, 『영산』, 『시주』, 『시조』, 『조사』, 『금성』, 『남전』, 『시요』, 『남민』, 『조선』
#67 (573.2)	『가보』, 『영규』, 『시경』, 『시권』, 『근악』, 『조연』
#68 (336.1)	『악나』, 『남태』, 『시여』, 『남상』, 『조연』, 『시주』, 『시조』, 『시연』, 『남전』, 『교가』, 『잡신』, 『잡정』, 『잡특』, 『잡현』, 『잡보』, 『가감』, 『교주』, 『조선』
#69 (4217.1)	『올보』, 『잡평』

위 표는 『가나』 부조 항목 작품의 타 가집 수록 현황으로,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가나』 단독 출현 작품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부조’ 항목 작품들이, #69를 제외하면 꽤나 많은 가집에서 공출하는 작품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작품 별로 공출하는 가집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62는 『남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가집에서, #63은 20세기 초반의 시조창 가집이나 잡가집에서, #64는 19세기 초반 가곡창 가집 『영충』에 수록된 게 특이하며 나머지는 모두 20세기 초반의 시조창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65는 『악나』, 『홍비』 모두 가곡창 가집으로, 작품 역시 가곡창 형식으로 수록된 것이 독특하고, 『남태』를 제외하고 모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시조창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66은 『남태』를 제외하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조창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67도 『가보』, 『영규』, 『시경』, 『시권』, 『근악』과 같은 19세기 초반 가곡창 가집에 주로 수록되었고, 20세기 초반 시조창 가집인 『조연』에서 공출하며, #68은 『악나』에서는 가곡창 형식으로 보이다, 그 외 『남태』를 제외하곤 모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가집과 잡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69는 20세기 초반 시조창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부조 내 작품들은 대부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시조창 가집에

서, 간혹 잡가집에서 공출하고 있으며 몇 작품은 가곡창 가집에서 가곡창 형식으로 공출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시조창 형식의 작품임에도 1863년 발간된 『남태』와 공출하는 작품이 네 작품, 그렇지 않은 작품이 네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나』 ‘부조’ 항목에 수록된 작품들이 『남태』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64·65·67은 공출하는 가집 중 가곡창 가집의 가곡창 작품과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더 확장된 논의를 위해 같은 유형 내의 다른 군집의 작품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자.

저 건너 一片石이 師商父의 釣臺로다  
 文王은 어디 카시고 빈 터만 남앗나니  
 夕陽의 물 처 노 저리 네나 알가 호노라 『청장』419

저 건너 일편석은 강터 꿩의 조드 뵈다  
 문왕은 건 곳 업고 디뎌 홀노 남나 잇구나  
 석양의 물 처 제비 오락가라 『악나』326

저 건너 일편석은 강터 꿩의 조드 뵈다  
 문왕은 어디 카고 빈 비 홀노 마 예난야  
 석양의 썩 일우 갈매기난 오락가락 『가나』63

#63은 원래 『청장』에서 최초로 보이는 작품이 일정 정도의 변화를 겪으며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에서 원래 터였던 것이 ‘베’로 바뀌었고, 중장에서 물 차던 제비가 임의 소식을 알까 한다고 말하던 화자의 등장했던 『청장』과는 달리 『악나』에서는 석양의 짝 잃은 갈매기의 모습만 언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청장』에서도 등장하지만 같은 군집 작품이 『남태』에서도, 『가곡원류』 계열에서도 등장하며, 이 군집과는 다른 군집 작품이 『가나』나 이외의 19세기말 20세기 초반 시조창 가집에서 등장한다.

닷 드나 바 후 내니 이제 가면 언제 올고  
萬頃蒼波에 가니 듯 도라옵사 니  
밤중만 닷 드니 소란 예 ○ 귀니 듯 듯 허역라 『시박』503

디 썩자 바 후 내니 이제 가면 언제 오리  
萬頃蒼波에 가니 듯 도라옵사 니  
밤중만 至菊蕙 소리 예 ○ 귀니 듯 허역라 『병가』644

달 썩자 바 후 내니 이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초 파장수의의 나난 드시 도라옵세  
밤중만 지국총 닷 감난 소리 추 못일위 허노라 『악나』345

달 썩자 바 후 내니 이제 가면 언제 오리  
萬頃蒼波의 가니 드신 도라옵사 니  
밤중만 치어의야 닷 던디 소란 잊거든 니 쫓나야쇼 『영총』34

달 썩자 바 후 내니 이제 가면 언제 올가  
만경창포 깃픈 물의 나난 다시 단여옵세  
밤중만 지국총 닷 감난 소리 예 경성을 『가나』64

#64는 총 네 군집이 있는데 각 군집 작품이 최초로 수록된 가집을 순서대로 하면 『시박』→『영총』, 『병가』→『악나』, 『남태』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시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장에서 닷을 든 후에 배가 이동한 건지, 달이 뜨자 이동한 것인지, 중장에서 가는 듯이 돌아오는 것인지, 나는 듯이 돌아오는 것인지에 차이가 보이며 특히 각 군집 작품의 중장이 눈에 띄게 다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원래 가곡창 형식으로 불렀던 작품이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전승이 되면서 각 가창자들의 혹은 청자들의 기호에 맞게 어느 정도 내용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전승의 과정에서 이 사설들이 모두 시조창 사설로도 불렀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특히나 같은

군집의 작품임에도 『영충』과 『가나』의 종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르지나 세지낫 중에 **주근 後入면 내 아디냐**  
나 주근 무덤 우회 **밧츨 가나 논을 마내**  
酒不到劉伶墳上土 | 니 아니 놀고 어이리 『청김』438

이러니 저러니 흥되 **날더령낭 마를 마소**  
나 죽은 무덤 우회 **논를 풀지 밧 갈지**  
주부도유령분상토니 아니 놀고 『남태』6

니러니 저러니 흥여도 **날드름낭 말을 마소**  
인사 **췌엄 무덤 우의 논을 푸러 밧츨 갈지**  
주부도유령분상토라 안니 노던 『가나』65

#65는 네 군집이 전해지는데 두 번째 군집은 『근악』에만 전해진다. 두껍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초장의 내용은 유사하나 구의 구성이 아예 다르다는 것과 중장의 내용이 일정정도 다르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도 원래 『청김』부터 유래되었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청김』과 같은 군집에서는 시조창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의 내용이 일정정도 바뀌며 『흥비』에 전해지고, 이 군집이 『남태』나 『가나』에서 시조창 형식으로 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독특한 점은 『남태』와 『가나』는 같은 군집 작품으로 보임에도 중장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달 밝고 **설이 치는** 밤에 울고 가는 기럭기야  
소상 동정 어디 두고 녀관한등에 잠든 나를 ㄸ 워느냐  
밤중만 네 우름소리 **참 못 니러** 『남태』18

달 밝고 **서리 찬** 밤의 울고 가던 기럭기야

소상 동정 어디 두고 여관한등 잠든 날을 ㅈ 워닌야  
밤중만 네 우름소리 참 못 일워 『가나』66

#66은 두 군집이 전해지는데 모두 다 시조창 형식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포착된다. 『남태』의 초장과 『가나』의 초장 한 부분이 다르다. 『남태』에서는 ‘서리 치는’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가나』에서는 ‘서리 찬 밤’으로 표현된다. 서리가 치는 걸로 보면 일종의 동적 움직임이 가미되는 것이고, 서리가 찬 밤으로 보면 그것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차이점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군집의 작품 중 『남태』 계열 가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 작품 표현대로 전해진다. 특히 『남태』 계열 가집 중 『남상』도 『가나』의 표현대로 전해지며, 『남태』와 공출하는 작품이 많은 『시주』의 경우도 『남태』 표현이 아닌 『가나』 표현대로 전해지고 있다.

길러기 풀풀 다 나락들이 消息인들 ㅈ 전하리  
愁心이 疊疊하니 사익 읊야 ㅈ 워닌 ㅈ 배  
차 하랴 저 다익 되어 비취어나 보리라 『해일』496

그러기 텅텅 다 나라가니 소식인들 ㅈ 전하리  
수심이 첩첩하니 잠이 와야 ㅈ 울 ㅈ 깨  
잠조차 가져간 김을 사 재홍약 무사 호뢰 『가보』140

기러기 훨훨 다 나라가고 입의 소식 ㅈ 전하리  
수심은 첩첩함되 잠이 와야 ㅈ 나랴 ㅈ 자  
지금의 잠조차 가져간니 사 재 문삼 『가나』67

기러기 풀풀 다 나라니 ㅈ 消息인들 ㅈ 전하리  
愁心은 疊疊하디 차익 읊야 ㅈ 아 로지  
千里에 님 離別하 고 사 못일워 호노라 『악나』109

#67은 9개라는 꽤 많은 군집이 전해지며 그 중 다섯 군집은 각각 『시서』, 『남민』, 『조선』, 『잡평』, 『해수』에서 한 작품씩만 전해진다. 각 군집들은 초장의 음성 상징어가 다르다는 점과 중장에서 꿈을 아니꾸겠다와 꿈을 꾸지와 같은 표현 방법의 차이가 보이며 중장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이 군집 내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18세기 후반 가곡창 가집에서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앞의 작품들과는 달리 『가나』에 영향을 준 작품들은 애초에 가곡창으로 불렸고, 그게 시조창으로 변하면서 『가나』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 이미 등장했던 작품들이 일종의 사실 변화를 거쳐 가곡창 형식으로 전해지고, 또 이것이 시조창 형식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다만 같은 군집의 가곡창 작품의 영향 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나』는 중장에서 또 다른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공미에 갈건야복으로 남병사 후일 칠성단 모고  
 동남풍 빈 연후의 단하로 내려가니  
 후췌의 일엽소선 타고 날 기달일손 저 조롱이라 『악나』324

공명이 갈건야복으로 남병산 상봉에 올라  
 칠성단 모고 동남풍 비 연후에 단하로 내려가니  
 후췌에 일엽소선 타고 안저 기다리니 장산는 도자통인가 『남태』100

공명니 갈건야복으로 남병산 상상봉의 올라  
 칠성단 못고 동남풍 빈 연후의 단하로 내려간니  
 후췌의 일엽소선 타고 안저 가라리난 장사 날 조운인가 『가나』68

#68은 세 군집이 전해지는데 두 군집에 각각 한 작품씩 전한다. 이 작품의 경우 『가나』에 수록된 작품 군집이 다수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군집에도 다른 군집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은 『악나』나 『남태』에서 처음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악나』의 경우는 가곡창 형식으로 보

이는 작품이 전해지고, 『남태』는 시조창 형식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 구성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태』 작품은 『가나』 작품의 내용을 어느정도 확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봉’이 ‘상상봉’으로 ‘비 년후’가 ‘빈 연후’로 ‘도자룽’이 ‘조운’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전한다. 물론 노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실 작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의미가 유사해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나』의 ‘남병사 호’는 ‘남병산의 아래’로, 『남태』의 ‘남병산 상봉’은 ‘남병산의 꼭대기’로, 『가나』의 ‘남병산 상상봉’도 역시 ‘남병산의 꼭대기’라는 의미겠지만 ‘상봉’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로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가집에서 언급한 ‘자룽’이든, ‘조자룽’이든, ‘조운’이든 모두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이것을 노래로 부를 때에는 ‘다르게’ 불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대부분 『남태』 계열 시조창 가집들에는 모두 『남태』처럼 기록되나 『시조』에서는 『가나』의 모습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조연』이나 잡가집 등에서도 그렇다. #69는 한 군집으로만 전하며 『남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며 20세기 시조창 가집인 『울보』와 『시평』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가나』에 수록된 부조 작품과 그것과 같은 군집 작품들의 여타 가집 수록 현황과 같은 유형 내의 다른 군집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부조 작품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부조의 특성을 짚어보자. 『가나』를 살펴보면 우선 부조 항목은 가곡 항목과 시조 항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가곡 부분의 필사 형태는 2단 12행 귀궤체인데 부조 항목의 필사형태도 이와 같다. 그런데 종장 마지막 음보를 생략한 것은 시조 부분의 필사 형태와 같다. 한편 뒤이어 있는 시조 항목은 가곡 부분의 필사형태와는 다르게 행이나 단의 구분 없이 필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애초에 필사자는 가곡과 시조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 것을 부조 항목에 수록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조 항목에 수록된 8수의 작품은 다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가곡창 가집과 시조창 가집에 동시에 수록

된 작품, ㉔ 여러 군집 작품이 존재하는데 『가나』가 속한 군집은 시조창 가집에만 수록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 ㉕ 시조창 가집에만 수록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부조가 가곡과 시조 양쪽으로 불리던 유동적 가곡이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수록된 작품 수가 8수밖에 되지 않아 이것을 당대에 유행하던 흐름이라고만 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이 가집 편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 편자가 가곡창 연행 현장과 시조창 연행 현장에도 능통했던 편자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은 수의 작품이 수록됐다 할지라도 이 부조 항목을 따로 분류한 것으로서 가곡창과 시조창이 경쟁하던 시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나』 부조 항목 수록 작품들은 이후 어떤 양상을 보일까. 본고 후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논자도 역시 언급하겠지만 『가나』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율보』와 『시조집』(연대본)과 친연성을 보이며, 『율보』의 경우는 『시조음률』과 큰 친연성을 보인다. 특히 『율보』의 경우는 『가나』에 등장하는 특이한 항목명도 동일할 정도로 큰 친연성을 보이는데, 『율보』에도 역시 부조 항목에 8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8수 중 단 한 작품만 공출하며, 『율보』 부조 항목에는 3수의 유일 작품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율보』는 『율보』가 편찬되던 주변 환경에 맞는 작품들이 수록됐다는 것이다. 특이한 명칭의 항목명까지 같다는 점에서 『율보』는 『가나』와 같이 편자의 취향과 편자의 주변 환경의 영향이 부조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서 유사점을 보이며, 역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연』에는 부조 항목이 없으며, 『가나』 부조 항목 수록 작품 중 6수의 작품이 『조연』 시조 항목으로 이동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가나』 부조 항목 작품의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가 가곡창과 시조창이 모두 유행할 때쯤, 그것들 모두로 불릴 수 있는 일종의 유동적 악곡의 작품을 부조 항목에 담고 있었다면, 『조연』에서는 그런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 시조창의 명확한 확립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나』의 부조는 『남태』와도 크게 관계가 없는 시조창 사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주지하듯 『남태』는 19세기 중반 산생된 대중적 시조창 가집이다. 그런데 시조창으로 수록된 이 『가나』의 부조 항목 작품은 이 ‘대중적’ 작품과는 다른, 물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일부러 사설을 번개하여 전하고 있다. 이것을 결국 두 가지의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첫째 『가나』의 편자는 『남태』를 접하지 못했거나, 둘째 일부러 『남태』와는 다른 계열의 가집을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가나』를 편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첫째 상황에 대한 가정은, 또 다른 가정에 까지 닿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가나』가 『남태』보다 약간이라도 빠른 시기에 산생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정에 이은 가정이 그럴 듯한 이유는 『남태』 계열의 가집이나 혹은 『남태』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시주』나 『시조』가 오히려 『가나』의 사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나 부조 항목 작품 중 특히 #64, #67가 18·9세기 가곡창 가집의 영향 하에 산생됐다는 점, 『남태』와 전혀 상관없는 작품이 절반이라는 것에서 그렇다.

### 3. 『가나』 시조 항목에 대하여

앞 장에서 부조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나』가 나름의 과도기적 시기 가집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태』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가집이며, 『남태』와는 다른 유형의 가집일 수 있는 가능성, 더 나아가 어쩌면 『남태』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산생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시조 항목에서도 이런 징후를 찾아볼 수 있을까. 당장 언급해볼 수 있는 것은 『가나』의 유형 단독 작품은 총 9수인데, 이는 모두 시조 항목에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나』의 편자는 『가나』의 가곡 부분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설들을 편자가 이

해하고 있는 가곡창의 순서에 맞게 배치한 것이고, 이 가집 편자의 창작 작품은 주로 시조 항목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즉 『가나』 편자, 『가나』 작품들의 연행 환경의 독특한 부분이 모두 시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나』 시조 항목 작품과 『남태』와의 공출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 『남태』의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시조창 가집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가집이다. 당연히 시조창 혹은 시조창 가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남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지부터 따져왔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남태』와 연관이 있으면 『남태』 계열 시조창 가집으로, 연관성이 부족하면 『남태』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혹은 특이한 시조창 가집으로 정의내린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 시조 항목과 『남태』의 공출 작품이 많다면 『가나』는 『남태』 계열 시조창 가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태』는 총 224수, 『가나』의 시조 항목은 총 134수이다. 과연 두 가집 공출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질까?

[표 2] 『가나』 시조 부분 작품들의 『남태』 수록 현황

#70	X	#92	X	#114	X	#136	X	#158	X	#180	O	#202	X
#71	X	#93	X	#115	O	#137	X	#159	O	#181	X	#203	X
#72	O	#94	X	#116	X	#138	X	#160	X	#182	X		
#73	X	#95	X	#117	X	#139	X	#161	X	#183	X		
#74	O	#96	X	#118	X	#140	O	#162	O	#184	X		
#75	X	#97	X	#119	X	#141	O	#163	X	#185	X		
#76	O	#98	X	#120	X	#142	X	#164	X	#186	X		
#77	X	#99	X	#121	X	#143	O	#165	O	#187	X		
#78	X	#100	X	#122	X	#144	X	#166	X	#188	X		
#79	X	#101	O	#123	X	#145	X	#167	X	#189	X		
#80	O	#102	X	#124	O	#146	X	#168	X	#190	X		
#81	X	#103	O	#125	X	#147	X	#169	X	#191	X		
#82	O	#104	O	#126	X	#148	X	#170	O	#192	X		
#83	X	#105	O	#127	X	#149	X	#171	O	#193	X		
#84	X	#106	X	#128	O	#150	X	#172	O	#194	X		
#85	X	#107	X	#129	O	#151	X	#173	X	#195	X		

#86	X	#108	O	#130	X	#152	X	#174	X	#196	X		
#87	O	#109	O	#131	X	#153	X	#175	O	#197	X		
#88	X	#110	X	#132	X	#154	X	#176	X	#198	X		
#89	X	#111	X	#133	X	#155	X	#177	X	#199	X		
#90	O	#112	X	#134	X	#156	X	#178	X	#200	X		
#91	X	#113	X	#135	O	#157	O	#179	X	#201	X		

위 표는 『가나』 시조 항목 부분 작품과 『남태』 공출 현황을 분석해본 것이다. 위 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 『가나』의 시조 항목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은 『남태』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치화해서 본다면 『가나』 시조 항목 134수 중 『남태』에 수록된 작품이 30수이고, 『남태』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 104수로 각 21%, 76%의 수치로 나타난다. 이 수치들만 보더라도 『가나』는 『남태』와는 거의 다른 계열의 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19세기 중후반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시조창 가집들은 물론 이전의 가곡창 가집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계열성 정리들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그것들이 확실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남태』와는 공출빈도가 높다던가, 남태를 저본으로 삼아 간행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sup>3)</sup> 그런데 『가나』는 『남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작품 수의 세 배의 수로 남태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29수의 공출 작품마저도 사실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남태』와 다른 경우가 많다. 29수의 공출작 중에서 24수가 세 어절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나』는 『남태』와 완벽하게 다른 시조창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집이라 할 수 있다.

[표 3] 『가나』 시조 부분 작품들의 가곡창 가집 수록 현황

#70	X	#92	X	#114	X	#136	X	#158	X	#180	X	#202	X
#71	X	#93	X	#115	O	#137	X	#159	O	#181	X	#203	X

3)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191~193쪽; 박이정, 「대중성의 측면에서 본 『남훈태평가』 시조의 내적 문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7쪽.

#72	O	#94	X	#116	X	#138	X	#160	X	#182	X		
#73	X	#95	X	#117	X	#139	X	#161	X	#183	X		
#74	X	#96	X	#118	X	#140	X	#162	X	#184	X		
#75	X	#97	X	#119	X	#141	O	#163	X	#185	X		
#76	O	#98	X	#120	X	#142	X	#164	X	#186	X		
#77	X	#99	X	#121	X	#143	O	#165	O	#187	X		
#78	X	#100	X	#122	X	#144	O	#166	O	#188	X		
#79	X	#101	O	#123	X	#145	X	#167	X	#189	O		
#80	O	#102	O	#124	O	#146	X	#168	O	#190	O		
#81	X	#103	X	#125	O	#147	X	#169	O	#191	O		
#82	O	#104	O	#126	X	#148	X	#170	X	#192	X		
#83	O	#105	O	#127	O	#149	O	#171	O	#193	X		
#84	X	#106	X	#128	O	#150	X	#172	X	#194	O		
#85	O	#107	X	#129	O	#151	X	#173	X	#195	X		
#86	X	#108	O	#130	X	#152	X	#174	X	#196	X		
#87	O	#109	O	#131	X	#153	X	#175	X	#197	O		
#88	X	#110	X	#132	X	#154	O	#176	X	#198	X		
#89	X	#111	X	#133	X	#155	X	#177	X	#199	X		
#90	O	#112	X	#134	X	#156	X	#178	X	#200	O		
#91	X	#113	O	#135	O	#157	X	#179	O	#201	X		

또한 앞서 부조 항목에 대한 절에서도 언급했듯 부조 항목 작품의 경우는 가곡창 형식의 작품을 개작한 작품이 몇 작품이 있었다. 그러나 위 표를 보면 시조 항목에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가곡창의 영향 하에서보다는 시조창 연행 현장 속에서 『가나』가 시조 항목 작품들이 산생됐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할 수 있다. 즉 『가나』 편자는 자신 혹은 자신들만의 연행 현장이 있었고 그 연행 현장은 그들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가사도 부르고 가곡창도 부르고 자신들 당대에 유행하던 작품을 시조창으로 부르고, 또 시조창을 부르는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앞서 언급한 『남태』와 공출하지 않으면서 가곡창 가집에도 실리지 않은

작품은 총 85수로 시조 항목 수록 작품 134수 중 63%에 이르니, 『가나』는 본격적인 시조창 유행 시기에 편자만의 개성을 담은 가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나』 시조 항목에는 유형 단독 혹은 군집 단독 작품의 수가 19수라는 것과 다섯 종 이하의 가집에 수록된 작품은 총 47수라는 점에서도 『가나』 시조창 항목 수록 작품의 독특함, 다른 가집 편자들과는 구분되는 가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나』 시조 항목의 이러한 모습은 부조 항목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킨다. 즉 『가나』는 『남태』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는 시조창 사실을 수록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개성있는 연창 환경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사나 가곡 항목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대 유행하고 있던 모든 가창물을 담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남태』와는 거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가나』의 편찬 시기를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미루기보다는 19세기 전반기 즈음, 그러니까 『남태』보다는 앞선 시기로까지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나』의 특성에 대해 가곡 부분에서는 19세기 초반의 모습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사가 가곡 뒤에 위치하는데 『가나』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런데 가곡창 사실 수보다 시조창 사실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 그리고 20세기 초반 즈음 산생된 것으로 보이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율보』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곡 부분은 19세기에 산생된 가집을 저본으로 하여 옮기고, 그 뒤는 편자의 특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는 『가나』가 하나의 저본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한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집이라고 할 수는 없을까? 우선 앞선 연구에서 언급했던 가곡의 19세기 초반 가집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19세기 전반 가집의 특성으로 의의가 바뀐다면 우선 이 가정

4) 권순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律譜』의 특성과 계보」, 『고전과해석』 제29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 177~206쪽.

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조창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엔 『가나』에 시조창이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조창이 다수 수록됐다는 것은 대중적인 시조창 가집인 『남태』에 의한 영향력을 상정하여 결론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바로는 『가나』의 시조창 부분은 『남태』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가나』 시조창 사설들은 『남태』와 어떻게든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기존 연구에서 『가나』의 특성을 『남태』 이후로 짐작했던 그 근거와는 나름대로 먼 이야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나』의 전체 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 물론 1896년에 기록됐다는 것은 필사가 그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집 전체가 그대 생성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사와 가곡 부분이 19세기 전반의 특성을 보인다면, 마치 『악나』가 『홍비』의 전사본이라 할지라도 각조음이라는 항목을 넣었고 그 각조음은 『악나』만의 특성을 보여줬으며, 그것이 『가곡원류』 계열 가집과 『남태』 생성 즈음의 가곡창과 시조창 연행의 혼재 속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성향을 보여주는 가집이었던 것처럼, 『가나』 역시도 가사, 가곡창, 시조창 등이 연행되는 복잡 다단한 현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의 가집, 즉 19세기 전반, 조금 더 자세히는 1850년 이전의 가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 『가나』 계열 가집의 가능성

지금까지 『가나』 부조 항목부터 시조 항목까지를 살펴보면서 『가나』의 가집사적 위상을 논하며 그것에 대한 재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나』 부조 항목에는 총 8수의 시조창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 중 네 작품은 『남태』와 공출하며 네 작품은 공출하지 않는다. 공출하지 않는 작품들은 가곡창 가집의 가곡창 작품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생성된 작품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남태』와 공출하는 네 작품도 『남태』와는 차이가 분명해 보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나』는 『남태』와는 거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부조(浮調)’의 항목에 수록된 작품은 유동적 악곡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조 항목의 위치는 가곡창과 시조창 작품 사이에 있으며 그 명칭도 기존의 가집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흥비』와 『악나』를 들 수 있는데 둘 모두 ‘각조음’이라는, 찾아보기 힘든 항목명이 보인다.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흥비』의 각조음은 계면조나 우조 둘 다 불릴 수 있는 작품들을 수록한 것이고<sup>5)</sup> 『악나』의 각조음은 가곡창, 시조창 모두 불릴 수 있는 작품들을 의미하는 것이라<sup>6)</sup> 하였다. 이 각조음 항목들은 『흥비』나 『악나』가 가창 현장의 과도기적 현상을 여실히 담고 있으며, 각 가집 가창 집단의 고유성 역시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했듯 시조창 형식이지만, 『남태』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항목의 위치가 가곡창과 시조창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 그 작품들이 가곡창 작품들의 이름의 영향을 받았지만 시조창 형식으로만 전한다는 점, 시조창 형식 유행이 19세기 전반기라는 점, 그리고 그 19세기 전반은 가곡 한바탕이 완성돼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부조 항목은 『가나』 편자의 고유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시기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시조 항목의 경우도 부조 항목과 비슷한데 『남태』와의 관련성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혹 『남태』와 관련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선 분명히 다름이 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작품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곡창 가집으로부터 영향이 어느 정도 감지됐던 부조 항목 작품들과는 달리 시조창 항목 수록 작품들에서는 정말 미미한 정도의 영향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이 시조창 항목 작품들도 『남태』 이전에 생성된 작품들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가곡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면서도 1863년 방각본 발행 이래 시조창 생성 환경에 큰 영향을 미

5)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6) 배대웅, 「악부 나손본(진)의 가집사적 위상」,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22.

친 『남태』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은 사실들이 실린 이 가집의 사실들을 『남태』 이후, 그것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성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들을 생각해본다면 『가나』 시조 항목 작품들은 『남태』 이전에 생성된 가집의 작품들로, 부조 항목처럼 이 가창 집단만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가나』의 경우 그것의 생성 연대를 기존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19세기 전반으로 앞당길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가나』는 그 구성이 『조연』과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 『가나』와 『조연』 작품 공출 현황

가나	조연	가나	조연	가나	조연	가나	조연	가나	조연	가나	조연
#1	#1	#94	#92	#123	#67	#142	#76	#161	#29	#182	#117
#2	#3	#96	#91	#124	#68	#143	#75	#162	#28	#183	#118
#6	#22	#97	#97	#125	#70	#144	#74	#163	#25	#185	#123
#9	#59	#103	#79	#126	#72	#145	#66	#164	#23	#186	#115
#13	#105	#104	#80	#127	#49	#146	#65	#165	#21	#188	#114
#19	#2	#107	#83	#128	#50	#147	#61	#166	#20	#190	#109
#20	#5	#108	#44	#129	#51	#148	#60	#167	#18	#194	#113
#22	#6	#109	#90	#130	#52	#149	#48	#168	#17	#195	#112
#23	#31	#110	#99	#131	#53	#150	#43	#169	#16	#196	#124
#42	#33	#111	#94	#132	#47	#151	#62	#170	#15	#198	#11
#43	#19	#112	#98	#133	#54	#152	#40	#172	#96	#199	#12
#52	#9	#113	#95	#134	#55	#153	#39	#173	#14	#200	#13
#63	#71	#114	#100	#135	#56	#154	#38	#175	#107	#203	#120
#64	#110	#115	#84	#136	#57	#155	#37	#176	#106		
#65	#111	#116	#85	#137	#24	#156	#36	#177	#102		
#66	#41	#117	#86	#138	#58	#157	#35	#178	#101		
#67	#26	#118	#87	#139	#27	#158	#34	#179	#104		
#68	#103	#120	#88	#140	#78	#159	#32	#180	#121		
#93	#93	#121	#64	#141	#77	#160	#30	#181	#122		

『조연』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편저자와 편찬 연대를 알 수 없는 가집으로, 전반부에는 가사, 후반부에는 가곡과 시조 사설을 수록하였다. 편찬 연대는 확실하진 않으나 20세기 초에 간행된 26종의 가집 가운데 19종에 수록된 <춘풍간별록(추풍감별곡)>이 가사에 포함된 점, 가곡보다 가사를 앞에 배치하고 시조 사설을 집중 수록한 구성 등을 보아 20세기 초 잡가집의 영향권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필사 형태는 처음부터 가곡 ‘편이라’ 항목까지는 3단의 귀글체로 배치되어 있으며, ‘시조’ 항목부터는 다른 가집과 같이 줄글 형태로 필사하였는데, 이것은 『가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또한 가곡은 우조 6수, 룡 1수, 계면 1수, 편 4수, 총 13수로 편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가곡 레퍼토리 가운데 간략하게 편가를 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편가 구성은 20세기 초에 간행된 잡가집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sup>

그런 『조연』과 『가나』는 총 108수가 공출한다. 이것은 『가나』 전체 134수 중 80%, 『조연』 125수 중 86%의 비중을 차지하며 굉장히 큰 공출률을 보여준다. 위 표는 『가나』 작품과 『조연』 작품 간의 공출 현황을 자세히 나열한 것이다. 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이 두 가집 간의 작품 공출이 단순히 공출률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그 순서마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순서가 완벽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배열의 순서가 유사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가집의 깊은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한 군집의 작품이 『가나』와 『조연』에서만 혹은 『가나』, 『조연』 외에도 한두 가집 속에서만 전하는 것을 봐서도 충분히 두 가집의 큰 친연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와 함께 이를 살펴본다면, 『가나』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율보』와 가곡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율보』에도 역시 ‘부조’라는 항목명이 있으나 그 수록 작품이 『가나』와 같은 것은 한 수

7) 이상의 논의는 권순희, 「시조집 연대본」, 신경숙·이상원·권순희·김용찬·박규홍·이형대, 『고시조문헌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86~287쪽; 백순철, 「시조집(연대본)의 체제와 수록 작품의 특성」, 『한민족어문학』 제54호, 한민족어문학회, 2009.를 참고했다.

만 있고 3수는 유일작이다. 시조창 형식의 작품의 경우 9수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율보』는 『시조음률』과 유사점이 있으니 그렇게 보면 『가나』, 『율보』, 『시조음률』에 『조연』까지, 하나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가집들 중에는 가곡창에 더 집중하고 있는 가집이 있기도 하고 시조창에 더 집중하고 있기도 하며, 가사가 함께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특정 가사 작품이 수록되지 않기도 하는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조창 가집들과 관련하여 계열로 정리한 것이 주로 『남태』와 연관이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나 있나, 그래서 이것이 『남태』 계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가나』와 『가나』와 관련된 가집들을 보면 그것을 『가나』를 중심으로 『가나』 계열 가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발견된 가집들 중 일종의, 또다른 계열의 가집이 발견된 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계열 가집 전체의 특징은 무엇인지, 특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계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또다른 가집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이 필요해 보인다.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가사』(나손본),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  
『시조음률』,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  
『시조집』(연대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악부(건)』, 단국대학교 율곡기념 도서관.  
『율보』(한글박물관본), 국립한글박물관.
- 권순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율보』의 특성과 계보」, 『고전과 해석』 제29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 177~206쪽.
- \_\_\_\_\_, 「『시조음률』의 편제와 가곡의 특성」, 『한국언어문학』 제66집, 한국언어학회, 2008, 111~125쪽.  
(UCI: G704-000390.2008.66.006)
- 배대웅, 「악부 나손본(건)의 가집사적 위상」,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22.
- 백순철, 「『시조집(연대본)』의 체제와 수록 작품의 특징」,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학회, 2009, 39~69쪽.  
(UCI: G704-001066.2009.54.001)
-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 신경숙·이상원·권순희·김용찬·박규홍·이형대, 『고시조문헌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이상원, 「만황청류의 운명-『청구영언』 수록 전과 후」, 『한국시가연구』 제43집, 한국시가학회, 2017, 117~150쪽.  
(DOI: 10.32428/poetry.43..201711.117)

| Abstract |

## The characteristics of *Gasa*(Nason Version) - With a focus on its Bujo and Sijo

Bae, Dae-ung

Chosun Univ. PH.D.Candidate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Bujo" and "Sijo" items of *Gasa*(Nason version) and their own meanings. And through that, we'll make up a little bit more for the definition of *Gasa*(Nason version) and expand its hypothetical status.

It is safe to say that *Gasa*(Nason version) has little correlation with 『Namtae』, and the works included in the item of "Bujo" can be said to show the appearance of fluid music. The sijo item is similar to the relief item, but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with *Namhuntaebyeongga*, and even if it is a work related to *Namhuntaebyeongga*, most of the works are clearly different in any way. In addition, although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works, unlike the works of relief items that had some influence from the song chang gajip, only a small amount of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works of the Sijochang items

And although *Gasa*(Nason version) is not related to *Namhuntaebyeongga*, it has quite a lot to do with other branches. If you look at the branches related to *Gasa*(Nason version) and 『Kana』, you can say that they are the *Gasa*(Nason version) series based on *Gasa*(Nason version). It can be said that another series of branches, which are among the currently discovered branches, have been discovered. If so, it seems necessary to conduct an

24 韓國詩歌文化研究 第51輯

extended study on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family and what the specificity is.

**Key words** : *Gasa*(Nason version), *Namhuntaepyeongga*, *Sijo*, *bujo*, *Sijoja*(Yeondae version),  
Sjochang